

# 상대 일본어의 모음체계 연구

## - 음류를 중심으로 -

김대성  
(동해대학교)

**Kim, Daesung. 2003. A Study on the Sound Values of the Other I, E, O in Ancient Japanes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2), 157-183. This paper aims at reconstructing the sound values of the other I, E, O in Ancient Japanese which had eight vowels in Nara period (A.D. 710-794). In the case of the other I, I examined the sound value of Ancient Chinese medials in division III and IV which Bernhard Karlgren, Chinese and Japanese scholars had assumed, and proposed my own, because the other I depends on the medials. According to the *Nihongi* (Chronicles of Japan from the Earliest Times to A.D.697), *Manyō kanas* or Japanese phonetic alphabet that belong to the rimes *Hai* (哈) and *Hui* (灰) were very much used to represent the other E, which made me to investigate the two rimes to figure out the sound value of the other E. The result is that the other E, like the other I, is a diphthong. As the sound value of the other O is determined by one of the rimes *Yu* (魚) and *Deng* (登) that is most likely similar to it, I made it clear that *Yu* is the main rime and the other O's value is a [ø] based on five grounds. We arrive at the conclusions that the other I is [ɨi] including [ɨi], E [ɜ] including [ɜe], O [ø].

**주제어(Key words):** 이(イ)음류, 에(エ)음류, 오(オ)음류, 개음, 哈운, 灰운, 魚운, 登운, 만요우가나

### 1. 들어가는 말

상대일본어<sup>1)</sup>의 모음체계는 일반적으로 8모음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학계에서는 정설로 되어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5모음, 6모음, 7모음체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의 설에는 일반음성학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의 설은 상대 문헌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수

---

1) 여기서 말하는 상대 일본어란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를 말한다.

궁하기 힘든 언어적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다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나는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8모음 전체를 다루기에는 지면상의 관계도 있고 우선 그 소릿값 추정에도 상당히 이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원 등과 같은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이(イ), 에(エ), 오(オ) 을류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을류라는 명칭은 갑류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1942)가 맨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물론 하시모토 신키치<sup>2)</sup> 이전에 ‘이·에·오’에 두 가지 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시즈카 타즈마로우(石塚龍磨)가 언급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음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표기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이것을 음운론적 측면에서 재발견한 것이 바로 하시모토 신키치이다. 이 연구에 의해 이후의 일본 고대어 연구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연구 결과는 또한 우리의 고대국어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유창균(1983, p. 238)은 ‘進乃 一云 進仍乙 - [進禮]’의 ‘乃’를 설명하는 가운데, ‘乃’는 ‘仍+乙, nɔ+ɸ’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乃’의 소리를 ‘nəl’로 보고, ‘nəl’에 대하여

nəl은 本是 ‘野’의 訓인 것으로 생각된다. ‘野’의 일본어 ‘の’와 對應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어 ‘野’는 을류가 아니라 갑류이기 때문이다. 즉, [nɔ]<sup>3)</sup>가 아니라 [no]인 것이다. 일본어의 ‘の’에는 ‘들’을 뜻하는 것과 우리말의 소유격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努 ; 野’ 등으로 표기되고 후자는 ‘乃能酒 ; 之’ 등으로 표기되어 서로 이들 만요우가나자(萬葉假名字)<sup>4)</sup>는 통용되는 일이 없다. 통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은 본래부터 서로 다른 뜻을 지닌 서로 다른 소리의 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책의 228쪽을 보면, ‘加知奈 一云 加乙乃 - [市津]’을 설명하는 가운데 ‘乃 - 奈’의 호용은 중고음으로 하강해야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만요우가나(萬葉假名) ‘乃’는 蟹 躰 哈 韻 상성 개구 1등자로서

2) 일본어 우리말 적기는 ‘한별 일본어 우리말 적기’에 따른다.

3) 편의상 관례대로 을류의 ‘이, 에, 오’는 갑류의 [i, e, o]에 대하여 [i, è, ô]로 표기한다.

4) 만요우가나표기란 향가 표기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乃’가 속한 哈운자는 일반적으로 ‘該開愷凱慨 kē, 皜導 gē, 倍 fē, 倍bè ; 苔臺 tö, 迺耐 dö, 乃迺 nō (倍 fo) ; (哀埃愛 e, 代耐 de, 乃 na)’처럼, 에(エ)을류와 오(オ)을류로 쓰이며, 아(ア)로 나타나는 예는 ‘乃’ 하나 뿐으로 이것이야말로 중고음 이전의 어느 시기의 반영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고음 이전의 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乃, na’가 ‘奈’와 같은 소리라는 사실은 유창균이 사용하고 있는 버나드 칼그렌, 퉁 통후아(董同龢), 쩌우 화까오(周法高)와 멩 빵신(丁邦新)의 재구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일본 자료를 이용하므로 해서 보다 더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イ)을류의 소릿값부터 추정해 나가기로 하겠다.

## 2. 이(イ)을류의 음가 추정

### 2.1. 여러 학자들의 이(イ)을류 추정음

이(イ)을류의 음가에 대한 주요한 설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리사카 히데요(有坂秀世, 1955, pp. 402-416)는 [i]([ii])<sup>5)</sup>([iii])로 추정하였는데, 특히 그의 추정음 [iii]는 코우노 로쿠로우(河野六郎)에 그대로 이어진다. 오구라 하지메(小倉肇, 1970)는 6, 7세기는 [ii]([ii])로, 8세기는 [i]([iii])로 보아 합구성이 점차 약해져 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마츠모토 카즈미(松本克己, 1976)는 모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오는 자음에 따른 조음 특징에 의해 갑류와 을류를 구별하고 갑을류의 모음은 같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핫토리 시로우(服部四郎, 1976)는 마츠모토 카즈미의 설과 마찬가지로 모음은 같고 갑류와 을류의 차이는 구개화된 자음이나 비구개화 자음이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설은 실제로 갑류는 [kj-i], 을류는 [k-i]가 되기 때문에 갑류와 을류는 모음뿐만이 아니라 자음도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을 지니고 있다. 오오노 스스무(大野晋, 1982, p. 163)는 “イ列甲類は張唇前舌狭母音i。イ列乙類は張唇中舌狭母音i<sup>6)</sup>でやや長い母音であった時期があるだろう (이(イ)갑류는 평순 전설 협모음 i, 이(イ)을류는 평순 중설 협모음 i로 조금 긴 모음이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키모리 타쿠야(沖森卓也, 1983)는 마츠모토 카즈미, 핫토리 시로우와 추

5) 가능하면 본론에서는 [i]의 중설음은 [i]로, [u]의 중설음은 [u]로 표기한다. 따라서, [i]는 [ii]가 될 것이다.

정음이 같다. 마지막으로 모리 히로미치(森博達, 1991, pp. 67-77)는 갑류의 [i]에 대하여 그 이완음(lax)인 [ɨ]로 추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상대 일본어의 이(イ)을류의 음가에 대하여 크게 이중모음으로 보는 설과 단모음으로 보는 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설의 근거가 되는 만요우가나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보기로 하자.

## 2.2. 이(イ)을류로 쓰인 만요우가나자

상대 일본어에서 이(イ)을류로 쓰인 만요우가나자를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奇騎綺寄ki 宜<sub>gī</sub> 被<sub>彼</sub>fi 麤<sub>bi</sub> (支운 3등 개구)
- (2) 義<sub>gī</sub> (支운 4등 개구)
- (3) 悲<sub>秘</sub>fi 眉<sub>備</sub>bi 脂<sub>潤</sub>3등 개구)
- (4) 基<sub>己</sub>紀<sub>記</sub>ki 疑<sub>擬</sub>gi (之운 3등 개구)
- (5) 幾<sub>機</sub>既<sub>氣</sub>ki (微운 3등 개구)
- (6) 歸<sub>貴</sub>ki 斐<sub>肥</sub>飛<sub>妃</sub>費<sub>非</sub>fi 肥<sub>bi</sub> 微<sub>未</sub>味<sub>尾</sub>mi (微운 3등 합구)

(상대 일본어의 만요우가나자 중에서 『니혼쇼키(日本書紀)』 가요에 쓰인 알파군 즉, 나라시대의 일본어의 음운체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알파군<sup>6)</sup>은 밑줄과 진하게 표시, 베타군 즉, 나라시대 이전의 음운체계도 함께 섞여 있는 베타군은 밑줄과 이탤릭체로 표시, 알파군 베타군 동시사용은 밑줄 이탤릭 진하게 표시, 『니혼쇼키』 전체에 보이는 자는 밑줄로만 표시함)

『니혼쇼키』 가요의 알파군 단독으로 또는 알파군과 베타군 동시에 쓰인 만요우가나자만을 보면, ‘키’에는 之운(基己紀), ‘기’에는 之운(疑擬), ‘비’에는 支운(彼), 脂운(悲), ‘미’에는 微운(微)이 쓰였는데, 합구음<sup>7)</sup>인 경우는 微운만

6) 모리 히로미치의 용어이다. 그에 의하면, 알파군은 당시의 중국음을 가지고 『니혼쇼키』가요를 표기한 것이며, 표기자 또한 북방 중국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베타군은 이미 일본 한자음으로 굳어진 음(和音 또는 倭音)을 토대로, 즉 중고음을 포함하여 중고음 이전의 음이 뒤섞여 정착된 표기법을 토대로 일본인이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7) 합구음이란 개음[u][u]를 지닌 운을 말한다. 기존학자들은 [u]만을 합구음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나는 [u]도 합구 개음으로 보고 있다. 물론 [u]개음을 지닌 운은

이 쓰였을 뿐 支·脂운에는 만요우가나의 예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상대 일본어 이(イ)음류의 소릿값을 추정하려면, 먼저 중국 중고음의 개음(medial, 지에인(介音))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커다란 관건(pivotal point)이다. 왜냐하면, 추정 개음의 차이는 곧 바로 나라시대 이(イ)음류의 음가 추정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중고음의 개음을 재구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나의 학위논문(キム・デソン, 2000, pp. 54-61)에서 밝힌 적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 2.3. 3, 4 등 개음(介音, medial)을 어떻게 볼 것인가?

3등개음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재구음을 살펴보면, 버나드 칼그렌(Bernhard Karlgren, [i]), 왕 리(王力, [i]), 푹 통후아(董同龢, [j](=[i]))와 옌 쉬에첸(嚴學宥, [j](=[i])) 등은 3, 4등 중뉴운의 3등과, 순3등 그리고 그 이외의 3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i]개음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재구음에는 차이가 있으나 루 즈웨이(陸志韋, [i] : 중뉴운의 갑류/A류·그 외 3등, [j] : 중뉴운의 을류/B류·순3등), 토우도우 아키야스(藤堂明保, [i](=[i]) : 설상, 치상, 순3등음), [j] : 그 밖의 모든 3등음. 따라서 3, 4등 중뉴의 3등음(을류)도 같은 [i]임), 코오노 로쿠로우(河野六郎, [i] : 갑류, [j] : [i]=m=tt, 을류) 등은 구분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설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3등개음을 구분하지 않는 전자의 경우는, [i]로 추정되는 微운 3등개구음만을 예로 들면, 만일 3등 개음이 그들의 주장대로 [j]가 아니라 [i]라고 한다면, 한국 전승 한자음(이하 ‘한국 한자음’으로 줄임)에서는 [이]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見 k]璣、譏、蟻[溪k’氣(기)8]蚘[羣g]祈、幾、畿、機、蟻[影·]衣、屐의[曉h]豨회’9)와 같이 모두 [의]로 반영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더군다나, [i]에 의하면 만요우가나는 이(イ)음류가 아니라 이(イ)갑류로 반영되었을 것인데 실제로는 ‘非肥飛費斐妃 fi, 肥 bi, 微尾未味 mi, 幾機既氣 ki’와 같이 이(イ)음류로만 나타나고 있는데, 설령 이(イ)음류로 반영되는 것이 대세라고 무리하게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イ)갑류로 나타나고 있는 예가 최소한 1예 이상은 있었을 터인데 ‘依衣 e, 希氣既 kē’와 같이 중고음 이전의 예조차 예(エ)을

없다.

8) 한 자에 두 가지 이상의 음이 있는 경우는 괄호 안에 나타낸다.

9) 성모 재구음은 토우도우 아키야스(藤堂明保, 1980)에 의함. 이하 같다.

류의 예는 있을지언정 이(イ)갑류의 예가 전무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또한, 개구음을 [i](=[ttɪ])로 보고 있는 아리사카 히데요나 코우노 로쿠로 우의 경우는 한국한자음의 [의]의 [으]를 [ttɪ]로 보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그렇다면 臻섭 痕1등운과 曾섭 登1등운의 핵모음을 [i](=[ttɪ])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고려해 볼 때, 그리고 痕운과 登운의 한국 한자음의 반영례와 이들 두 운의 중고 재구음을 비추어 볼 때 [으]가 [ttɪ=i]일 수 없기 때문에 [ttɪ]로 보는 개음은 타당하지 못하다(キム・デソン, 2000, pp. 265-274).

한편, 토우도우 아키야쓰(藤堂明保・小林博, 1971, p. 22)는 설상음, 치상음, 순3등음을 [i](=[ɨ])로, 그리고 이것들 이외에 중뉴3등 율류음을 포함한 모든 3등 개음을 “介音I 三等拗音の弱い介音で、[ɸ]や[ɸ]などのワタリ音を表す(개음 I 3등음의 약한 개음으로 [ɸ]나 [ɸ] 등의 파도음을 나타낸다)” 라고 하여, [i]와 [ɨ](=[i]) 사이의 음으로 보고 있다. 또한, 루 즈웨이와 마찬가지로 양 지엔치아오(楊劍橋, Yáng Jiànqiáo, 1996, pp. 115-132)는 11가지 근거를 들어 중뉴현상이 존재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我们认为中古重纽A类具有i介音，B类具有ɪ介音，i是一个舌位较前，开口较小，音色较亮的强介音，ɪ是一个舌位较后，开口较大，音色较暗的弱介音，到现代方言中，强介音i总是吞没原来的主元音或者u介音，弱介音ɪ则不能吞没原来的主元音或者u介音。”(p. 128) (중고음의 중뉴 A류는 개음이 [i]이며, B류는 [ɪ]이다. [i]는 비교적 혀의 위치가 앞이며, 개구도는 작아 음색이 맑은 강한 개음이며, [ɪ]는 비교적 혀의 위치가 뒤이며, 개구도는 커서 음색이 어두운 약한 개음이다. 현대 중국 방언에서 [i]는 항상 본래의 핵모음이나 [u] 개음을 흡수해 버렸으나, [ɪ]는 흡수하지 못했다.)

[ɪ]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학자의 재구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첫째, [ɪ]개음에 의하면 한국한자음에서 東운 1등이 [옹]([見k]工功公蚣貢공/穀穀穀谷곡[溪k'][蟲k]孔鞞공/哭곡[影·]翁翕[革翁]塢瓮魘옹/屋옥[匣h]虹烘紅鴻葑尙興/斛榭곡[端t]東凍凍凍{東[虫虫]}棟동[透t']通桶痛통/禿鴉독[定d]童潼潼瞳桐銅衙動동/瀆漬漬牘讀讀讀獨獨獨[泥n]膿농[來l]櫛嚙籠龔[革龍]{

穴龍)룽/鹿(눅)漉籠輻籠{淥皿}謬碌/祿(록)눅[精ts]鯁鬢중/鏃족[清ts']凶葱聰중[從dz]叢중/族족[幫p]卜복[滂p]醜복[竝b]蓬篷봉/僕복[明m]蒙朦夢몽/木沐목)으로 반영되었는데 반해, 東운 3등은 [옹]([見k]弓躬宮궁/菊掬鵠鞠국[溪k']穹궁/麴국[影·]燠육[喻y(于u)]雄熊웅[明m]目苜牧목[非p]風楓諷풍/幅蝠幅福腹복[敷p]豊풍/蜂봉/蝮복[奉b]鳳봉/服鵬鰲(박)복)<sup>10)</sup>으로 반영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東운 3등이 [옹]으로 나타난 이유는 구개화 개음 [i]에 의해 후설 핵모음 [오]가 중설로 이동하여 [우]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개음이 [i]이었다면 東운 3등은 東운 1등과 마찬가지로 [옹]으로 반영되었거나, [옹]과 [옹]의 혼용례가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둘째, 遇섭 魚운([io]로 추정됨)의 경우, 魚운 3등 개음을 구개화가 약한 [i]라고 하면, [io]는 핵모음이 [ø]가 되지 않고 그대로 [ɔ]에 가까운 소리가 되어, [어]가 아니라 [아]나 [으]로도 반영되었을 터인데, 그러한 예는 단 하나도 없고, 중고음과 당말(唐末) 사이의 음의 반영으로 보이는 [오]([初ts']礎초[疏s]梳蔬蔬所소)의 예가 있을 뿐이다.<sup>11)</sup> 또한 만요우가나에서는 오(オ)을류로 나타나는데, 만일 [i]개음을 지닌 것으로 보면, 핵모음 [ɔ]는 구개화가 약한 개음에 의해 중설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아마도 江운과 마찬가지로 아(ア)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i]개음에 의해 중설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魚운에는 오(オ)을류뿐만이 아니라, 아(ア)로도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ア)의 예가 1예도 없고 오로지 오(オ)을류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i]개음에 의한 설명에는 이와 같은 맹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설명을 통해 나는 3등개음을 순3등과 중뉴3등의 개음을 [i]로, 3, 4등 단운의 3등·戈운 3등·尤운 3등의 개음을 [i]로 보고 있고 또한 모든 운의 4등 개음은 [i]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의 학위논문(pp. 54-61)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2.4. 상대 일본어 이(イ)을류의 소릿값

그러면, 상대 일본어 이(イ)을류의 소릿값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이(イ)을류로 쓰인 만요우가나자는 모두 止섭에만 나타나는데 나의

10) 순음의 경우 상당수의 예가 [옹]이 아니라 [옹]으로 반영되었으나, 이 문제는 순음에 한해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개음과는 관계가 없다.

11) 물론 이러한 현상은 성모와의 관계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중고음의 성모를 재구할 때 보다 더 분명한 나의 견해를 밝히겠다.

채구음(キム・デソン, 2000, pp. 31-69)에 의하면, ‘支3[i̯] 支3[iu̯] 支4[i̯] 支4[iu̯] 脂3[i̯] 脂3[iu̯] 脂4[i̯] 脂4[iu̯] 微3[i̯] 微3[iu̯] 之3[i̯] 之4[i̯]’와 같다. 止섭 3등의 경우 중설의 [i]이거나 [i̯](之운)라 하더라도 핵모음이 중설인 운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운미음은 항상 [i]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설적인 어떤 소리와 운미음 [i]와 같은 소리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 이중모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었다고 가정하면, 양성 운미음 [-m/n/ŋ]이나 입성 운미음 [-p/t/k]를 지닌 운의 자를 만요우가나자로 쓴 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음과 같이

- (7) [a] 于智弓之夜**莽**務うちてしやまむ・多多企阿**藏**播梨たたきあざは  
り・作沙**さ**さ・以矩美娜開餘**囊**開いくみだけよ**だ**け・乃樂能婆  
娑摩儂**なら**のはさまに
- (8) [i] 枳謂屢箇**皚**必謎きるるかげひめ
- (9) [u] 於尸農瀾能おしぬみの・耶黎夢之魔柯枳やれむしばかき
- (10) [e] 志邏伽之餓延塢しらかしが江を・塢等綿塢をとめを
- (11) [o] 異玖用伽菴菴流いくよかねつる・於朋著妬庸利于介伽卑氏おほ  
きとよりうかかひて (倭我於朋枳美能わがおほきみの・能朋梨  
陲致のぼりたち・阿餓倭柯枳古弘あがわかきこを)
- (12) [ö] 阿利等枳枳底ありとききて・莒母喇矩能こもりくの・比登涅羅  
賦ひとねらふ・賊據鳴枳舸斯題そこをきかして

운미음 [i] 이외의 [-m/n/ŋ/p/t/k] 운미음의 예에는 ‘a, i, u, e, o, ö’의 경우 쓰이고 있지만, 이(イ)을류와 에(エ)을류에는 그러한 예가 없다는 것은 이(イ)을류(에(エ)을류도 포함)가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イ)을류(에(エ)을류도 포함)로 쓰인 만요우가나에는 ‘니고우가나(二合假名)<sup>12)</sup>의 예가 1예도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니고우가나로 쓰인 만요우가나를 보면 다음과 같이

- (13) [a] 香山之かくやまの・覺賀鳥かくがのとりに・素羹鳴尊**す**さのの  
みこと・相狹丸あふさわに
- (14) [i] 色妙乃**し**きたへの・今悔拭**いま**ぞくやしき・鍾禮乃雨丹**し**ぐれ

12) 니고우가나란 운미음을 지닌 한자 한 자로 일본어의 2음절을 표기한 것을 말한다.



のあめに

- (15) [u] 鬱瞻乃うつせみの・筑紫乃綿者つくしのわたし  
 (16) [e] 玉藻苧兼たまもかりけむ・著點等鳴きせてむとかも・佐伯山さ  
 へきやま・鬱瞻乃うつせみの  
 (17) [o] (忍坂部乙麻呂おさかべのおとまろ・越乞爾をちこちに)  
 (18) [ö] 興臺産靈此云許語等武須毗ことむすひ・烏德自物をとこじも  
 の・他田日奉直得大理をさだのひまつりのあたひとこたり・越  
 乞爾をちこちに

‘a, i, u, e, o, ö’의 경우에는 니고우가나의 예를 볼 수 있지만, 이(イ)을류의 경우에는 에(エ)을류와 마찬가지로 니고우가나의 예가 단 1예도 없다는 사실은 이(イ)을류가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음성 운미음을 지닌 운만이 필요로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셋째, 蟹섭자는 이(イ)을류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의 蟹섭 재구 음은 다음과 같다 : 哈1[ɸi]灰1[uɸi] 泰1[ai]泰1[uai] 齊4[ei]齊4[uei] 皆2[ɸi]皆2[uei] 佳2[ɸi]佳2[ui] 夬2[ ? ]夬2[ ? ]<sup>13)</sup> 祭3[ɸei]祭3[ɸuei] 祭4[ɸei]祭4[ɸuei] 廢3[ɸei]廢3[ɸuei]). 蟹섭자는 止섭과 같이 운미음이 [i]인데도 불구하고 이(イ)을류로는 쓰이지 않은 것이다. 이(イ)을류로 쓰인 만요우가나자의 특징은 첫째, 핵모음이 중설인 皆운([ɸi])의 예가 없다, 둘째, 핵모음이 [ɸ/ə/ɸ]계열<sup>14)</sup>인 운의 예가 없다, 셋째, 강한 핵모음인 [ɸ/æ]를 지닌 운의 예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ɸ/e]는 에(エ)을류와 관련이 있고, [ɸ/ə]는 오(オ)을류와 관련이 있고, [ɸ/æ]는 에(エ)갑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イ)을류의 음가는 이 세 가지 특징과는 구별되는 어떤 소리로서 핵모음이 약한 [ɸ/°/°]와 중설적인 개음 [ɸi]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리이었을 것으로 짐작케 해 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근거에 따라 상대 일본어 이(イ)을류로서 이중모음이면서 중설적인 음을 지닌 예상 가능한 소리로는 [ɸɸi], [ɸi], [ɸi]를 들 수 있다.

상대 일본어 이(イ)을류를 합구성을 지닌 이중모음 즉 [ɸɸi]로 본다면, 중고음에서 개구음을 지닌 운과 합구음을 지닌 운 중에서 어떤 한 운만이 적

13)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음의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로 남겨둔 것이다

14) 여기에서 계열이란 음색이 비슷하지만, 개구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ɸ/ɸ/æ], [ɸ/ə/ɸ] 등을 말한다.

합했을까 아니면 두 운 다 적합했을까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당연히 상대 일본어의 이(イ)음류가 합구성을 지녔다고 가정하는 이상, 개구음을 썼을 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어쨌든 개구음을 지닌 운의 경우, 개음[ɨ]는 [tɨ]와는 서로 다른 이음(異音, allophones)으로서 쓰일 수 없는 개구성을 지닌 변별음이기 때문에 결코 합구성의 이(イ)음류로 쓰일 수가 없다. 그러나, 합구음을 지닌 운의 경우, 개음[ɨ-]의 [ɨ]는 [u]에 흡수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같은 개음이더라도 [u]는 강한 개음이지만 [ɨ]는 약한 개음이므로 당연히 [ɨ]는 [u]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지만, [u]가 [ɨ]에는 결코 흡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ɨ]는 구개화 개음 [j]가 아니라는 점은 합구개음 [u]에 흡수되기 좋은 조건하에 있는 것이다. 흡수된 [u]는 원순 후설모음(물론 원순 후설과 중설 사이의 음으로 이동하지만)이기는 하나, [ɨ]에 의해 [u]가 이완(lax)되므로 마치 [u]와 [ɯ] 중간 정도로 원순성이 조금 약화되므로 결국 [tɨ]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아리사카 히데요, 코우노 로쿠로우, 오구라 하지메 등과 같이 [ɨ]=[tɨ]로 본다면, 당연히 합구음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합구음만이 쓰일 수 있는 [tɨ]설에 의하면, 개구음이며 핵모음이 [ɨ]인 이운 [i̥]를 쓸 수 없는데도, 실제로는 [ki̥]와 [gi̥]를 나타내는 데 6자나 쓰이고 있으며, 또한 『니혼쇼키』 가요에는 미(ミ) 이외에는 모두 개구음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특히, 니혼쇼키 가요에서 微운 합구음이 ‘미(ミ)’자 이외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イ)음류가 합구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남은 두 설을 살펴보면, 이(イ)갑류와 이(イ)음류가 나라시대에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 갑류와 음류의 혼용예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갑류와 음류의 소리의 차이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음류를 [ɨ]로 보면, 갑류와 음류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혼용예가 많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갑류로 합류하는 시기도 에(エ)음류와 오(オ)음류 보다 훨씬 많이 빨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이(イ)음류가 [ɨ]이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イ)음류를 [ɨ]로 보는데, 나의 이(イ)갑류([i])·이(イ)음류([ɨ])설에 의하면, ‘갑류 [kj-i] : 음류 [kj-ɨ]’가 되어 음류의 [kj-i]까지는 갑류 전체와 같으나, 음류의 [ɨ]에 의해 즉, 갑류 [i], 음류 [ɨ]에 의해 명확히 소리가 구별되므로 서로 다른 음소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iɨ]설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나는 [ɨ]설을 제안한다. 따라서, 이(イ)음류의 음가는 [ɨ](단, [iɨ]설도 배제하지 않

음)이다.

### 3. 에(エ)을류의 음가 추정

#### 3.1. 기존학자들의 에(エ)을류의 음가 추정 및 만요우가나

에(エ)을류의 음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요한 설을 제시하면, 이(イ)을류와 마찬가지로 단모음으로 보는 설(오오노 스스무(1982, p.163) : [ɛ], 마츠모토 카즈미(1976) : 에(エ)갑류 /kje/ ; 에(エ)을류 /ke/, 핫토리 시로우(1976) : 구개화한 [k, g, p, b, m] 에(エ)갑류 ; 구개화하지 않은 [k, g, p, b, m] 에(エ)을류)과 이중모음으로 보는 설(아리사카 히데요(1955, p. 446) : [œ] 또는 [ai], 모리 히로미치(1981, 1991) : [æ̃])이 양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에(エ)을류로 쓰인 만요우가나를 보면,

(19) 遇攝 : 魚韻 3 等 ‘居舉kë’ 2 例

(20) 止攝 : 支韻 3 · 4 等 (以下 ‘等’ 省略) ‘宜gë(3)義gë(4)’ 2 例

脂韻 4 ‘甍kë’ 1 例

微韻 3 ‘希氣既kë’ 3 例

(21) 蟹攝 : 哈韻開口 1 ‘該開愷凱慨kë、皜導碍gë、倍fë、倍bë’ 10 例

灰韻合口 1 ‘陪杯背珮fë、陪每bë、梅每昧妹më’ 10 例

皆韻 2 ‘階戒kë、俳拜fë’ 4 例

齊韻 4 ‘閉fë、謎bë、迷米më’ 4 例

泰韻 1 ‘沛fë’ 1 例

(『니혼쇼키』 가요 중에서, 알파군(알파군과 베타군 둘 다 모두 쓰인 경우는 진하게 그리고 밑줄로)은 진하게, 베타군에만 쓰인 경우는 밑줄로 표시)

처럼 특히 진하게 되어있는 哈운과 灰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哈운과 灰운의 음가를 알면 에(エ)을류의 음가를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니혼쇼키』 가요 알파군에서는 모두 에(エ)을류의 哈灰운만이 쓰이고 있으며, 오(オ)을류에는 桴臺tö、酒耐dö ; 乃酒nö ; 倍fo 등은 쓰이지 못하고, 魚운과 登운만이 쓰이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哈灰운과의 관계만 밝히면 에(エ)을류의 음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2. 哈·灰운의 음가 추정

이 두운의 음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한국한자음과 만요우가나 이외에 베트남한자음, 티벳한자음도 참고할 만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한일 자료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哈운1등 개구음은, 한국한자음에서는 주로[익](該 訶開기 哀의 海訶咳訶載 더 態티 代티 怠티 宰지 菜치 載지 塞시/식)로 나타내며, [익] 이외에는 [애](繫개 鑑개 埃애 耐내 賽새/시)가 많다. 이 사실은 아마도 [으]와 [아]가 유사한 인접음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만요우가나의 경우, ‘該開愷凱慨kë, 皐導礙gë; 倍fë; 倍bë 苔臺tö, 泗耐dö; 乃 泗nö; 倍fo 哀埃애e; 代耐de; 乃na’와 같이 중고음 이전의 예로 추정되는 ‘乃na’를 제외하면, 주로 중설모음의 에(ɛ)음류와 오(o)음류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중고음은 중설모음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합구음의 灰운 1 등의 경우, 한국한자음에서는 주로 [외](塊괴 隈외 灰회 廻 회 鎚퇴 退퇴 頤퇴 餒뇌 雷뢰 罪죄)로 반영되어 있지만, 순음만은 거의 규칙적으로 [익](杯비 背비 梅미 坯비 每미)로 나타난다. 만요우가나의 경우는 ‘陪杯背珮 fë陪每bë 梅每昧妹më; 徊隈廻we; 陪fo; 梅mo’처럼 주로 [ɛ(乙)](순음 ‘へべ’와 ‘ゑ’)로 나타난다.

한편, 哈灰운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재구음과 근거를 간단히 살펴보면, 칼그렌은 1, 2등 중운(double rimes)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Here the Korean loans give us valuable aid. In Table E this ancient source distinguishes in Div.I between rime 45 and rime 46. The former is written -ai(long a), the latter -ǎ(short ǎ) — both are now pronounced -ä, but the conservative writing keeps them well apart...”(Bernhard Karlgren, 1963, p. 242)

즉, 한국한자음에서 [애]와 [익]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아]를 긴 모음의 ‘a’(long a)로, [으]를 짧은 모음의 ‘ǎ’(short ǎ)로 해석하여 ‘哈韻[âi] 灰韻[uâi]’처럼 추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칼그렌의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재구음에 대하여 나는 반대한다. 고대 한국어의 [아]와 [으]는 중세 한국어에서는 물론이고 음의 장단에 의한 변

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칼그렌의 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코우노 로쿠로우 또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중국학자의 경우, 루 즈웨이는 남북조의 민가(民歌)에서 之운과 哈운이 합운(合韻)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哈운[bi] 灰운[wai]’로, 왕 리는 『經典釋文』의 반절과 당시(唐詩)의 용운(用韻)을 근거로 ‘哈海秦代曷[ai, at] 灰賄秦隊末[uai, uat]’로, 그리고 푹 퉁후아는 현대 중국방언음을 근거로 ‘哈[-ai] 灰[-uai]’와 같이 재구하고 있는데, 특히 1, 2등 중운에 대하여

“...我們曾說高本漢氏以元音的長短來分別哈皆與秦佳夫爲不可靠,並且又曾依據一些方言的現象,說他們的分別應當仍是元音的音色,現在從他們的來源看,哈皆佳在上古與ə、e等元音關係深,秦夫則與a、ɑ等關係深,...”(董同龢, 1993, p. 170) (우리는 이미 칼그렌(高本漢)이 모음의 장단에 의해 哈皆운과 秦佳夫운을 구별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몇몇 방언음을 근거로 1, 2등 중운의 구별은 여전히 모음의 음색에 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1, 2등 중운의 유래를 보면, 哈皆佳운은 상고에서 ‘ə, e’ 등의 모음과 관계가 깊으며, 秦夫운은 바로 ‘a, ɑ’ 등과 관계가 깊다.)

라고 하여, 칼그렌의 핵모음의 장단에 의한 구별을 부정하고, 또한 운도(韻圖) 배치도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엔 쉬에쿤은 푹 퉁후아와 마찬가지로 현대 중국방언음에 의해 ‘哈韻[ai] 灰韻[uai]’와 같이 추정하였다.

일본학자의 경우, 토우도우 아키야스(1980, pp. 253-256)는 이 두 운이 오음에서 오계열(才段)로 나타나며, 만요우가나에서는 오(才)을류로 반영되어 있는 점, 그리고 특히 에(エ)을류로 쓰인 예도 있는 점을 근거로 ‘哈韻[əj/əi] 灰韻[wəj/[uəi]’로 추정하였고, 코우노 로쿠로우는 칼그렌의 재구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孔雀明王呪經』에 의해 ‘-âi(哈) -uâi(哈)’로 재구하였다.

루 즈웨이의 ‘哈운[bi] 灰운[wai]’설에 따르면, 한국 한자음에서 [bi]의 경우 [이]와 [애]로 혼용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wai]의 경우, 순음 [이]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외]로 반영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더군다나 루 즈웨이의 합구개음 [w]에 의하면 약한 합구개음 [w]는 오히려 탈락하여 [ai]만으로 반영된 예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모두 [외]로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한 만요우가나의 경우도 [w ai]의 핵모음 [ə]는 오(才)을류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エ)을류

로 나타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왕 리의 재구음 ‘합운[ai] 灰운[uai]’는 루 즈웨이의 재구음보다 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재구음에 따르면 한국 한자음의 경우 합운은 [애]로, 灰운은 [왜]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泰운 개구음과 합구음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灰合운은 주로 [익]와 [외]로 반영되어 있고, 또한 만요우가나의 경우 泰운 합구는 예가 없지만 개구인 경우는 太(ta·da), 大(ta·da)처럼 아(ア)로 반영되어, 灰合운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재구음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똥 통후어의 재구음 정확도는 루 즈웨이와 왕 리 중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한일 자료에 의하면 배제된다. 그의 재구음에 의하면 핵모음이 [A]나 [a]와 같다. 즉, 중설 저모음이다)로 이 음은 刪운, 麻운, 陽운, 覃운에 나타나는데 이들 운의 공통적인 핵모음 반영은 [아]이며 만요우가나에서도 아(ア)이므로 [으]와 예(エ)을류와는 무관한 재구음이다.

마지막으로 토우도우 아키야스의 ‘합운[ai] 灰운[uai]’설은 만일 이러한 음이었다면, 루 즈웨이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두 운은 예(エ)을류 보다는 오(オ)을류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한자음의 경우는 蒸운 3등처럼 핵모음이 [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魚운처럼 [어]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도 결코 [으]라든가 [아]로 반영될 예가 극히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한일 두 자료에 의하면, 이 재구음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나는 합운과 灰운을 각각 [ɿ]와 [uɿ]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의 학위논문(pp. 111-112)을 참고하기 바란다.

### 3.3. 상대 일본어 예(エ)을류의 소릿값

그러면, 상대 일본어 예(エ)을류의 음가에 대해 추정해 보기로 하자. 먼저, 나의 재구음 ‘합韻[ɿ]·灰韻[uɿ]’에 의하면, 첫째, 비원순 중설모음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특히 [ɿ]는 후설모음인데도 불구하고, 예가 가장 많은 이유는, 마치 [oy]가 실제로는 [y]에 의해 [o]가 [ø](꾸앙쩌우어(廣州語)에서 많이 볼 수 있다. 居[koy], 隊[toy], 雷[loy], 水[soy] 등의 [o]는 [ø]이다)가 되어 [o]:[ø]가 변별되는 것처럼 운미음[i]에 의해 [ɿ]가 중설로 이동하므로 해서 실제음이 중설모음이 되기 때문에, 예(エ)을류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본다. 둘째, 이중모음이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ɿ]나 [v]를 지닌 운을 검토해 보면, [ɿ]에는 ‘합운’과 ‘灰운’밖에 없는데, 이 두 운은 바로 예(エ)을류의 대표운이다. 다음으로, [v]에는 ‘皆2[uɛi] : 階戒kē、俳拜fè 4 예 ; 元3[ɿe

n]元3[*i*uən]庚2[*e*ŋ]庚2[*ue*ŋ]庚3[*i*eŋ]庚3[*i*ueŋ]嚴3[*i*em]凡3[*i*uem] 모두 예가 없음과 같이, 皆은 이외에는 만요우가나의 예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예(エ)을류로 쓰인 운에는 반드시 운미음 [i]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예(エ)을류가 이중모음이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는 이미 이(イ)을류의 이중모음설에서 제기했던 것과 그 근거가 동일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둔다.

첫째, ‘元/庚/嚴’운에 예(エ)을류의 예가 없다는 사실이다. [ɿ][ɛi]처럼 운미음 [i]만을 지닌 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エ)을류는 이중모음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만일, 단모음이었다면, 적어도 운미음[i]이외에 [-m/n/ŋ/p/t/k]등의 운미음을 지닌 운의 예가 1예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イ)을류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イ)을류와 마찬가지로 예(エ)을류에는 [-m/n/ŋ/p/t/k]등의 운미음을 지닌 운의 예가 없다.

둘째, 만요우가나에서 운미음 [i] 이외의 니고우가나(二合假名)의 예를 보면, 이미 이(イ)을류에서 언급했듯이 이(イ)을류와 똑같이 예(エ)을류에는 ‘니고우가나’의 예가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은 운미음이 이중모음 중의 뒷소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m/n/ŋ/p/t/k]등의 운미음이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니혼쇼키』 가요 중에서 알파군의 경우 오(オ)을류와 예(エ)을류는 혼용되는 운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에 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예(エ)을류도 같은 단모음이었다면, 다분히 단모음의 오(オ)을류와 혼용되는 운의 예가 있었을 터이지만, 그러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예(エ)을류가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예(エ)을류는 비원순 중설모음이면서 이중모음이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エ)을류의 음가는 어떠했을까 검토해 보도록 하자.

먼저, 예(エ)을류는 분명히 [e]계열이 아니다. [e]계열이었다면, 예(エ)을류로 쓰인 운의 예가 예(エ)을류로도 쓰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예가 거의 없으므로(특히 『니혼쇼키』 가요 알파군에서는 예가 하나도 없다), 확실히 [e]계열은 아니다. 그리고, 오(オ)을류계열도 아니다. 그러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오(オ)을류로 쓰이는 魚운3 등이 예(エ)을류로 쓰인 것은 ‘居擧 kē’ 두 예뿐이다. 그러나, 『니혼쇼키』 가요 알파군에서는 이러한 예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예(エ)을류는 중고음의 [ɜ-e-ɹ]계열의 음이 쓰이고는

있지만, [ə-ɐ]계열의 음은 쓰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의해 [ɜe]나 [ɜi]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ɐ]([ɜ])와 [ɑ/a]를 함께 지닌 음색, an [ɐ] partaking of [ɑ] and [a]계열음은 그 예가 [ɿ]보다 적은 것을 보면 예(ɿ)음류는 [ɑ/a]보다 [ɜ]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예(ɿ)음류의 음가는 이중모음이므로 [ɜe]나 [ɜi]<sup>15)</sup> 또는 [ɜɿ] 중의 하나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ɜɿ]이었다면, 주모음(主母音)이 [ɜ]이므로, 예(ɿ)갑류와 예(ɿ)음류의 혼용이 불가능해지며, 뒤에 예(ɿ)갑류로 합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ɜɿ]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아 있는 것은 [ɜe]와 [ɜi]인데, 나는 예(ɿ)음류의 음가를 [ɜi]로 보고 있다. 이 [ɜi]([ɜɿ]>[i]>[e]로 합류: [ɜ]가 약해져 감에 따라, [i]가 [e]로 바뀌어 가는 원인이 될 것이다)에 의하면 주모음 [i]에 의해 [ɜ]가 나중에 탈락하게 되며, 탈락한 뒤에 [i]는 [e]와 소리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예(ɿ)음류가 예(ɿ)갑류로 합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ɜi]에 의하면, 합류 이전에 예(ɿ)갑류와 예(ɿ)음류가 혼용되고 있는 예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ɿ)음류를 [ɜi]로 보고 있는데, 다만 [ɜi]를 [ɜɿ]과 [ɜe]양쪽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ɜ]가 주모음인 [ɜɿ]나 [ɜe]는 아니며, 또한 결코 중모음(從母音)은 [ɜ]이기는 해도 [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 4. 오(ɔ)음류의 음가 추정

### 4.1. 오(ɔ)음류로 쓰인 만요우가나와 여러 학자들의 추정음

먼저 상대 일본어의 오(ɔ)음류에 쓰인 만요우가나자들을 모두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2) 魚3,4등: 居虛渠許巨去舉莒據kō; 語御馭gō; 諸所sō; 茹鋤絞序  
茹茹zō; 杼dō; 餘與豫預譽jō; 呂侶慮廬rō; (於淤飪o)  
33예

- (23) 登 1 등: 曾僧層增贈則賊sō; 賊zō; 登騰滕藤等tō·德tōko得tō,

15) 여기서의 [i]는 영어의 sick[sɪk]나 꾸앙퐁어(廣東語)의 請[tɕiŋ], 姓[tɕiŋ], 極[kɪk]와 같이 [i] 보다는 [e]에 가까운 음색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



- tōko; 騰藤藤特dō; 能nō; 稜rō; (朋fo) 22예  
 (24) 哈 1 등: 苔臺tō; 迺耐dō; 迺乃nō; (倍fo) 7 예  
 (25) 魂 1 등: 存zō 躰zō 2 예  
 (26) 欣 3 등: 近köno 乞köt 殿(隱o ono) 2 예  
 (27) 侵 3 등: 金kömu 今kömu (品fo, fomu 邑ofi, ofo) 2 예  
 (28) 蒸 3 등: 興kö, kögo; 凝gö 2 예  
 (29) 厚 1 등: 母mo/mō(코지키(古事記)에만 나타남) 1 예

이와 같은 사용례를 보면 魚운과 登운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哈운만이 예가 조금 있을 뿐(哈운에 대해서는 이미 예(工)을류에서 언급했음) 나머지 魂欣侵蒸厚운 등은 사용례가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魚운과 登운의 중고음을 알면 오(オ)을류의 음가 추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반영례에 대한 오(オ)을류의 음가에 대해 일본학자들은

- 아리사카 히데요(1955, p. 390) : [ö]
- 오오노 스즈무(1972, p. 190, 1995, p. 106) : [ə](독일어의 [ö]나 프랑스어의 [ø]<bleu>에 가까운 소리)
- 마츠모토 카즈미(1976) : gap의 구분 없음. 단지 변이음(바뀔소리, allophones)으로 보고 있음. [ɔ](원순성이 별로 없는 현대 토우쿄우 방언 등의 [オ]로 [ɔ]에 가까운 소리)
- 핫토리 시로우(1976) : [ö=ə](단 [o]의 중설모음이 아니라, [ə] 위치의 원순 중설모음임)
- 모리 히로미치(1991, pp. 84-85) : [ə]

로 보고 있다. 이상의 추정음을 보면 역시 중설 원순모음으로 보는 설이 유력한 것 같다.

#### 4.2. 魚운과 登운의 중고음 재구

魚운에 대한 한일 자료를 살펴보면, 만요우가나자의 경우 ‘居·擧’가 ‘等已彌居加斯支移比彌乃彌己等(天壽國曼茶羅繡帳銘 推古30년, 622년?) ; 止與彌擧奇斯岐移比彌天皇元興寺丈六釋迦佛光背銘 推古17년, 609년)’와 같이 [kë]로 반영된 중고음 이전의 예로 추정된 것을 제외하면, ‘居コ虛コ渠コ諸

ソ茹ヅ鋤ゾ餘ヨ許コ巨コ去コ擧コ莒コ語ゴ所ソ絞ゾ序ゾ茹ヅ杼與ヨ廬口呂口  
 侶口慮口據コ御ゴ馭ゴ茹ヅ豫ヨ預ヨ譽ヨ (於オ淤オ飢オ)와 같이 모두 오  
 (オ)을류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한자음의 경우, 魚  
 운 3등은 ‘[見k]擧車居踞鋸거/筥계[溪k]去祛거[羣g]據巨距炬渠菓莒거[疑ŋ]語  
 圖魚漁御馭어[影·]於飢어[曉h]虛許어[初tʃ]礎초[牀dʒ]鋤서[疏s]所梳蔬蔬소’와  
 같이 치에 윈(『切韻』)음과 당말(唐末) 사이의 음의 반영으로 보이는 치상음  
 (supradental sibilants)의 ‘礎초/所梳蔬蔬소’와 ‘筥계(운미음 [이]를 빼면 핵  
 모음은 [어]로 같다)’ 1예를 제외하고 모두 [어]로 반영되어 있으며, 魚운 4  
 등의 경우는 ‘[喻j(于y)]蝮餘餘與鸞興予蘋여/譽預豫예[徹tʃ]擣檣楸더[澄d]芋儲杼  
 筋더/芋서[娘ŋ]女녀[來l]呂侶侶廬鑪旅簪러[精ts]蛆沮저[淸ts]疽저[心s]絮서[邪  
 z]序嶼서[照ʃ]渚저/煮蠶자諸제[穿ʃ]處처/杵저[神ʃ]杼서[審ʃ]書鼠黍恕薯서[禪  
 ʒ]曙署薯墅서[日ʃ]茹茹汝汝’와 같이 운미음 [이]가 첨가된 [예]의 예가 있는  
 데, 개음과 핵모음이 같은 [여]이므로, [여] 이외의 반영으로 보이는 예는  
 ‘煮蠶자’와 같이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한자음에서는 3등은 [어], 4  
 등은 [여]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한자음  
 과 만요우가나의 예를 보면, 적어도 오(オ)을류는 후설이나 전설 모음이 아  
 니었다고 일단 가정할 수 있다.

魚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요한 재구음을 보면, 칼그렌과 중국학자들  
 에 의한 추정음과 일본학자들에 의한 추정음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전자  
 의 경우, 핵모음을 [o]로 재구하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후자  
 의 경우도 핵모음[o]로 추정하는 데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각 학자들의 근거를 간단히 살펴보면, 칼그렌은 한국한자음, 일본 오음  
 과 한음, 베트남한자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특히 魚운의 경우 한국한자  
 음에서 설상음이 [오]로 반영된 것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루 즈웨이는  
 魚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이 칼그렌의 개음 [iw]를 [i]로만 바꾸고 핵  
 모음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왕 리는 『四聲等子』에서 ‘東屋, 魚屋,  
 侯屋, 尤屋, 模沃, 虞燭, 冬沃, 鍾燭’과 같이 평성운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입  
 성운에서는 같다(異平同入)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똥 통후야는 『원  
 정(韻鏡)』에서 魚운도 ‘開(즉, 개구음)’로 표시되어 있고, 遇섭의 현대음은  
 [u, o, y]와 [u, o, y]에서 변화한 이중모음(複母音)의 [ou, œy]라는 사실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옌 쉬에첸도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핵모음을 [o]로 보고 있는 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만일 [io]였다고 한다면, 한국한자음에서는 3  
 등은 [ie]가 되어 일반적으로 개음은 간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4등은 [iə]가 되어 [요]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요우가나에서는 오(オ)갑류는 [o]와 [ə] 모두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오(オ)갑류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한자음은 [어]로, 만요우가나는 오(オ)을류로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魚운의 핵모음 [o]설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토우도우 아키야스는 ‘古樂府’의 ‘日出東南隅’에서 魚운과 虞운이 압운되고 있는 것과 ‘안씨가훈(顏氏家訓) 음사편(音辭篇)’에서 북방음의 경우 ‘庶:戍, 如:儒’와 같이 구별이 없으며, 만요우가나에서 魚운이 오(オ)을류, 虞운이 오(オ)갑류로 반영된 것을 근거로 魚운은 핵모음의 원순성이 약한 [ɔ]로 재구하였고, 코우노 로쿠로우노는 魚운이 한국 한자음에서 [어]로 반영되었는데, 이 때 [어]를 [ɔ]로 추정하고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만일 오(オ)을류를 [ɔ]라고 보면, 魚운은 오(オ)을류만이 아니라 아(ア)로도 반영된 예가 있어야 하나 (4.4.의 근거 네 번째 참고), 중고음 이전의 예는 예(エ)을류의 예만 즉, 중설모음의 예만 있을 뿐 아(ア)로 반영된 예가 하나도 없으므로 오(オ)을류를 [ɔ]로 볼 수 없는 맹점이 있다. 또한, 한국 한자음의 [어]를 [ɔ]로 본 것은 [어]는 결코 후설모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코우노 로쿠로우노도 이 점을 인정하여 뒤에 [어]를 [ə]로 보아, 魚운을 [iö, iō](=[iə, iə])로 수정하였는데, 이 음에 의하면 한국 한자음은 [오]와 [요]로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iɔ], [iɔ]로 본 것보다 못한 재구음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맹점을 지닌 칼그렌을 포함한 일본 중국학자들의 재구음에 대하여 나의 재구음 [iɔ], [iɔ]에 의하면, 한국 한자음에서 3등이 [어]로 반영된 것은 개음 [i]에 의해 [ɔ]음이 실제로는 [ə]로 이동함으로 해서 후설모음의 비원순 [ɔ]나 원순 [오]로 반영되지 못 하고, 중설의 [어]로 반영된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4등의 경우는 [iɔ]가 실제로는 [ə]가 되어 강한 개음 [i]가 반영되어 [어]로 나타난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재구음은 또한, 만요우가나가 중설모음인 오(オ)을류만으로 반영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登운의 경우, 만요우가나자는 ‘曾僧層贈增則賊ソ; 賊ヅ; 登等騰滕藤ト得ト・トコ徳トコ; 騰騰藤特ト; 能ノ; 稜ロ’와 같이 오(オ)을류로 반영되었는데 한국한자음의 경우 ‘[溪k]刻곡[曉h]黑흑[端t]等登燈橙橙등/得득/德덕[透t]慝특[定d]藤騰등/특특 [泥n]能(릉)능[來l]稜릉/肋勒력[精ts]增층/則즉[從dz]贈증/層층/賊적[心s]僧승/塞식[幫p]崩붕/北북[並b]朋(붕)朋/跽북/葡북[明m]墨

(목)목'과 같이 [으]으로 반영된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만요우가나에서는 쥘운 합구음의 예가 없으므로 한국한자음에서도 합구음은 제외하였다).

그런데, 쥘운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재구음과 근거를 보면, 우선 재구음에서는 칼그렌을 비롯한 중국, 일본학자들은 [əŋ]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칼그렌은 한국한자음에서 'ㄹ(즉, [으])'와 일본 한음에서 'o'로 반영된 것을 토대로 재구한 것인데, 이 주장에 대하여 왕 리와 코우노 로쿠로우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똥 통후아와 엔 쉬에첸은 현대 중국방언음에 따라 “《廣韻》曾攝字在現代漢語方言中與梗攝讀音難分, 吳, 粵, 閩語和客家話有不同痕迹. (嚴學寤, 1990, p. 79) (『꾸앙원』의 曾攝자는 현대 중국방언에서 梗攝자와 그 음을 구별하기 어렵지만, 오(吳)·월(粵)·민어(閩語)와 객가어(客家語)에서는 曾攝과 梗攝이 같지 않다는 흔적이 있다)”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루 즈웨이는 특별한 언급없이 臻攝 痕운에 따르고 있는 것 같으며, 토우도우 아키야스는 오음에서 오계열(才段)로 반영된 사실과 만요우가나에서 오(才)을류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재구음의 근거 자체에는 비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들의 일치된 재구음 [əŋ]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기에는 한국 고대 음운체계에 대한 배려를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나는 한국 고대 음운체계에 대하여 전면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언급할 처지는 못 되지만, 우선 임시로 나의 생각의 일단을 드러내면 '이[i] 우[ɥ]([ɥ~ɔ]) 으[ə] 어[ə] 오[u]([u~o]) 으[ɿ] 아[a]([a~a])'로 생각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əŋ]으로 재구된 [ə]가 한국 한자음에서는 무엇으로 반영되었는가 하면 바로 [으]의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어의 [으]는 [ə]이었다는 것인가?! [어]는 [ə]와는 전혀 무관한 소리이었다는 것인가?!

적어도,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재구음 [əŋ]은 한국한자음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재구음인 것이다. 이것은 더군다나 같은 曾攝에 속한 蒸운 3등의 한국한자음의 반영례를 보면 반 이상이 [으]으로 반영되었으며 蒸운 4등은 [으]과 [잉]이 거의 반반씩을 차지하고 있어, 侵운 3, 4등이 각각 [음]과 [임]으로 규칙적으로 반영된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侵운 3, 4등에 대해서는 핵모음과 운미음만을 들면, [əm]과 [im]으로 양분된 가운데 [em] 혹은 [ĕm]으로 보는 설도 존재한다. 이것은 역시 蒸운과 侵운은 어느 정도 핵모음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것은 나의 학위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어떻든 간에 쥘운과 마찬가지로 蒸

운 3, 4등에서도 [응]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쥘운을 [əŋ]으로 보기에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나는 쥘운을 [əŋ]으로 재구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만요우가나와 한국한자음에 의한다. 만요우가나의 경우 21자 모두가 오(オ)을류로 쓰이고 있고, 한국한자음의 경우 주로 [응]으로 즉, 핵모음이 [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저모음인 [ɜ]나 중모음인 [ə]가 아니라, 반고모음에 해당하는 [ə]이어야만이 [으]로 쓰인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3. 魚운과 쥘운에 쓰인 만요우가나 오(オ)을류의 쓰임새 분석

그러면, 상대 자료의 만요우가나자 중에서 魚운과 쥘운 중에서 어느 운이 오(オ)을류의 음과 가까웠거나 오(オ)을류의 음과 같았을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표 1.

× : 본래 없는 것, △ : 이 운에는 있으나, 만요우가나자로는 쓰이지 않은 것, ○ : 이 운에는 없는 것 ; 순음과 후음에 나타나는 ‘ホ・オ’등의 만요우가나자도 포함시켰으며, 유성음과 무성음에 동시에 나타나는 자는 중복해서 계산했음 ; 성모 재구음은 토우드우 아키야스에 의함

魚운					登운					
순음	p:○	p':○	b:○	m:○	p:△	p':△	b:(朋)	m:△		
설음	t':△	t':△	d:杼	ŋ:△	t:登等德得	t':△	d:騰滕 藤特/騰 滕藤	n:能		
아음	k:居擧 莒據	k':去	g:渠 巨	ŋ:語 御馭	k:△	k':△	g:×	ŋ:○		
치음	tʃ:諸	tʃ':△	tʃ:△	ʃ:△	ʒ:△	ts:曾增則	ts':△	dz:層贈 賊/賊	s:僧	
치음	tʃ:△	tʃ':△	dʒ:鋤	ʃ:所	z:紘序	z:×				
후음	·:(於淤 飫)	h:虛許	fi:×	u:△	j:餘與 豫預譽	·:△	h:△	fi:△	u:×	j:×
반설음	l:廬呂侶慮				l:稜					
반치음	r:茹				r:×					

표 1.을 보면, 魚운(후음 탁음[h] 3·4등은 본래 없음)에는 순음자가 없는데 반해, 登운(아음 전탁음[g] 1·2등, 치음 탁음 1·2등, 후음 차칭 1·2등, 반치음[ɾ] 1·2·4등은 본래 없음)의 경우에는 차탁음([ŋ])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며, 후음 전칭([·])과 청음([h])은 입성운에만 해당자가 있을 뿐 평성, 상성, 거성은 공란으로 비어 있다. 이상과 같은 분포에 의해 魚운과 登운을 검토해 보면, 설음의 경우 魚운 설상음은 권설음(혀말이 소리)이기 때문에 부득이 登운만이 쓰일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대표운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 하므로 설음 이외 즉, 'tö·dö·nö' 이외의 두 운의 반영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魚운 31자 : 登운 22자'의 분포가 '魚30 : 登10'으로 바뀐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제외해야 할 음이 있는데, 그것은 魚운에는 순음자가 없으므로 登운의 순음자를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魚30 : 登10'⇒ '魚30 : 登9'가 된다. 또한, 登운은 1등자이므로 2, 3, 4등자가 없으므로 'jō'와 같은 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 그러므로, 魚운 3, 4등에 쓰인 자를 제외하면, '魚30 : 登9'⇒ '魚25(73.5%) : 登9(26.5%)'가 된다. 즉, 치음의 경우 登운이 8자인데 반해, 魚운은 5자인데 이것은 登운의 성모가 일본어의 사·자(サ·ザ)행을 나타내는 데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반치음과 후음은 魚운이 1자와 5자인데, 登운에는 예가 없다. 반설음(II)의 경우 魚운은 4자, 登운은 1자가 쓰이고 있고, 아음의 경우 魚운은 10자인데 반해, 登운은 예가 하나도 없는데, 비록 본래부터 해당자가 魚운에 비해 훨씬 적다

표 2.

	베타군	알파군
	魚운 : 登운	魚운 : 登운
[kō]	許居去虛據 : ×	居舉莒據渠 : ×
[gō]	語馭 : ×	御渠 : ×
[sō]	諸 : 曾贈層	所 : 曾贈賊
[zō]	敍序鋤 : ×	茹 : ×
[tō]	× : 等登鄧	× : 等登騰藤
	베타군	알파군
	魚운 : 登운	魚운 : 登운
[dō]	× : ×	× : 滕騰
[nō]	× : 能	× : 能
[jō]	餘予譽 : ×	餘與預 : ×
[rō]	呂慮 : ×	慮慮 : 稜

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무한 사실을 보면, 魚운이 登운에 비해 오(オ)을류를 나타내는데 적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오(オ)을류의 대표운은 魚운이다.

그러면, 『니혼쇼키』만의 분석은 어떠할까? 두 운 이외의 자인 ‘罇苔耐廻’를 제외하면, 표 2와 같이 베타군의 경우 ‘魚운 16자 : 登운 7자’, 알파군의 경우 ‘魚14 : 登10’의 분포를 보이거나,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tö, dö, jö]에 쓰인 자를 제외하면, 베타군의 경우 ‘魚13 : 登2’, 알파군의 경우 ‘魚11 : 登4’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니혼쇼키』에서도 대표운은 魚운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4. 상대 일본어 오(オ)을류의 소릿값

이상과 같이 오(オ)을류에 쓰인 운을 살펴 본 결과, 魚운([iɔ])이 가장 오(オ)을류를 나타내는 데 적합한, 즉, 오(オ)을류와 음이 같거나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iɔ]는 실제음은 개음 [i]에 의하여 핵모음이 중설로 이동하므로 [iə]가 되는데, 이 때의 [ə]가 바로 오(オ)을류를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소리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요우가나 오(オ)을류자에 魚운이 대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오(オ)을류의 소리가 魚운에 가장 가까운 소리였음을 알 수 있다. 나는 魚운을 [iɔ]로 재구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iɔ]는 개음[i]에 의해 핵모음 [ɔ]가 중설로 이동하여 [ə]가 되므로 실제 소리는 [iə]가 되기 때문에 이 때의 [ə]가 만요우가나에서는 오(オ)을류로, 한국한자음에서는 [어]로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오(オ)을류자는 魚운 [iɔ]의 [ɔ]가 아니라 실제음 [ə]의 반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한국한자음의 반영례를 들 수 있다. 한국한자음의 魚운 [iɔ], [iə] (즉, [iə], [iə])는 [어], [여]로 반영되어 핵모음이 [어]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대한국어 모음체계의 [어]와 일치한다. 칼그렌이나 중국학자처럼 핵모음이 [o]였다면, 아리사카 히테요, 오오노 스스무, 핫토리 시로우 등의 중설모음 [ə]설이 유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ə][iə]이었다면 한국한자음에서 [오/요]로 반영되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여]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설은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오(オ)을류가 [ə]이었다면, [ə]→[o]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①중설→

후설화, ②비원순→원순화'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ɔ]는 후설화만 되면 마츠모토 카즈미가 말하는 것처럼 변이음(allophones)이 되어 감류로의 합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에(エ)을류가 중설에서 전설화가 이루어졌고 또한 이(イ)을류도 중설화에서 전설화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オ)을류도 단지 중설에서 후설화만 이루어짐으로 해서 뒤에 오(オ)감류로 합류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니혼쇼키(『日本書紀』)와 만요우슈우(『萬葉集』)에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는데,

- (30) 冬十月、至上總國、從海路渡淡水門。是時、聞覺賀(かぐが)鳥之聲。欲見其鳥形、尋而出海中。仍得白蛤。(권7,成務紀)
- (31) 高山(かぐやま)波 雲根火雄男志等 耳梨與 相諍競伎 神代從如此爾有良之 古昔母 然爾有許曾 虛蟬毛 孀乎 相拮良思吉 (『만요우슈우』 권1 13번 가요)
- (32) 使三國公麻呂·猪名公高見(ゐなのきみかがみ·たかみ)·三輪君獲穗·紀臣乎麻呂岐太、四人、代執雉輿、而進殿前。(권 25 孝德紀)
- (33) 十二月戊午朔辛酉、選諸有功勳者、增加冠位。仍賜小山位以上、各有差。壬申、船一隻賜新羅客。癸未、金押實等罷歸。是月、大紫韋那公高見(ゐなのきみかがみ·たかみ)薨。(권 28 天武紀)
- (34) 小納言正五位下威奈卿墓誌銘 并序 卿諱大村檜前五百野宮御宇天皇之四世後岡本聖朝紫冠威奈鏡公(ゐなのかがみのきみ)之第三子也 (威奈真人大村墓誌銘 707년)

만일 오(オ)을류가 [ɔ]이었다고 가정하면, 니혼쇼키에서 江(え)운([ɔŋ])으로 추정됨)에 속하는 ‘覺賀鳥’의 ‘覺’자는 [kɔk]으로 추정되며, 만요우슈우의 ‘高山’의 ‘高’는 상고음으로서 [kɔŋ](高木市之助·五味智英·大野晋, 1957~1962, p. 327)으로 추정되므로,<sup>16)</sup> 이들 만요우가나자는 아(ア)가 아니라 오(オ)을류로 쓰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ア)로 쓰인 것을 보면 오(オ)을류는 후설 저원순모음 [ɔ]가 아니었음이 확실한 것 같다. 따라서, 토우도우 아키야스와 마츠모토 카즈미의 설은 배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섯째, 원정(『韻鏡』)의 운도 배열을 보면, 魚운은 내전 제11개(内輦第

16) 『니혼쇼키』에서 같은 사람 이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高見(カガミ 혹은 タカミ)’의 예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十一開)에, 模운은 내전 제12개합(內輾第十二開合)에 배치되어 있는데, 魚운과 模운의 변천(演變)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齊梁陳	中古	唐末~5代	~現代	
模	ɔ>	o>	ø>	u>	u
魚	.iɔ>	.io>	.io>	.iu>	y

만일 魚운이 [ə]이었다고 하면, .iɔ(상고음)>.io(齊梁陳)>.iə(중고음)>...iu>y(현대)와 같은 변화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로는 중설 비원순 중모음인 [ə]가 후대에 전설 원순모음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원순 모음에서 비원순 모음으로 다시 원순 모음으로 변했다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ə]로 보고 있는 모리 히로미치의 설은 따를 수 없는 것이다.

## 5. 나오는 말

이상과 같이 상대 일본어의 이(イ)음류, 에(エ)음류, 오(オ)음류의 음가를 추정하였다. 이 세 음의 음가는 다음과 같다.

- 1) 이(イ)음류 : [ii] (단, [iːii]설도 배제하지 않는다)
- 2) 에(エ)음류 : [ɛi] (단, [ɛi]를 [ɛi]와 [ɛe]양쪽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 3) 오(オ)음류 : [o]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간단히 우리말의 어원을 일본어와 비교한 예를 한 두 가지 살펴보면서 본고를 마치도록 하겠다. 서정범은 우리말의 ‘노래, 웃다’ 등의 어원을 설명하면서, ‘노래’의 어근 ‘놀’은 일본어의 ‘nori(神語), norito(祝詞)’ 등의 어근 ‘nor’과 그대로 비교된다(1986, p. 158, 2000, pp. 144-145)거나, 일본어의 ‘oto(音)’는 우리말의 ‘ut(운, 音)’이 고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oto(音)’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1986, p. 171)거나, 또는 ‘울’과 동원어(同源語)이다(2000, p. 460)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먼저, 일본어의 ‘nori, norito’ 등은 만요우가나로는 ‘能里, 能里等, 能里斗, 法刀’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것은 이미 설명한대로 오(オ)음류로 쓰이는 자로 오(オ)갑류로 쓰이는 ‘努怒奴弩’ 등과는 서로 통용되는 경우가 없다. 즉, 앞에

서 추정할 음에 의하면 [nori, norito]가 아니라 [n̄ori, n̄rito]로서 전혀 다른 소리인 것이다. 더군다나, 만일 이러한 소리가 일본어와 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우리말은 결코 ‘놀’이 아니라 ‘널’이었을 것으로 추측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oto’는 ‘於登, 於等’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 만요우가나자 또한 오(オ)을류에 속한 자이므로 ‘oto’가 아니라 [ot̄o] 즉, [ot̄o]이다. [ot̄o]의 [o]는 상대 일본어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오(オ)을류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또한 아리사카 히데요(1957, p. 101)의 음운 결합법칙(“音韻結合の法則：第一則、甲類のオ列音と乙類のオ列音とは同一語根(動詞は語幹)内に共存することが無い。”) 갑류의 오(オ)계 열음과 을류의 오(オ)계 열음은 같은 어근(동사는 어간) 내에서는 공존하는 경우가 없다)에 의해서도 증명되는 것이다. 즉, [ot̄o]는 보다 이른 시기에는 [ot̄o]이었을 것이다. 이와같이 오(オ)을류에 속하는 예를 마치 오(オ) 갑류에 속하는 자로 생각하고 한일어의 어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오류인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이 예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자주 보이는 것인데, 고대 일본어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특히 어원 연구는 음운론적 설명에 타당성이 떨어지면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서정범. (1986). *어원별곡*. 서울: 범조사.
- 서정범. (2000). *국어어원사전*. 서울: 보고사.
- 유창균. (1983). *한국 고대한자음의 연구 II*.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有坂秀世. (1957). *国語音韻史の研究*. 東京: 三省堂.
- 有坂秀世. (1955). *上代音韻攷*. 東京: 三省堂.
- 大野晋. (1972). *上代仮名遣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 大野晋. (1995). *日本語をさかのぼる*. 東京: 岩波書店.
- 大野晋. (1982). *仮名遣と上代語*. 東京: 岩波書店.
- 沖森卓也. (1983). 古日本語の母音体系. *国文白百合*, 14.
- 小倉肇. (1970). 上代イ列母音の音的性格について. *国学院雑誌*.
- キム・デソン. (2000). 中古漢字音の再構成. 一韓日資料による韻母音を中心に—  
福岡大学.

- 高木市之助外校注.(1957~1962). 万葉集一(日本古典文学大系).  
東京: 岩波書店.
- 藤堂明保. (1980). 中国語音韻論. 東京: 光生館.
- 藤堂明保・小林博. (1971). 音注韻鏡校本. 東京: 木耳社.
- 橋本進吉. (1942). 古代國語の音韻に就いて. 東京: 明世堂.
- 服部四郎. (1976). 上代日本語の母音体系と母音調和. 言語, 5月号.
- 松本克己. (1976). 日本語の母音組織. 言語, 5月号.
- 森博達. (1981). 唐代北方音と上代日本語の母音音価 同志社外国文学研究, 第二十八号.
- 森博達. (1991). 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 東京: 大修館書店.
- 董同龢. (1993). 漢語音韻學. 臺北: 文史哲出版社.
- 严学窘. (1990). 广韵导读. 成都: 巴蜀书社.
- 杨剑桥. (1996). 汉语现代音韵学. 上海: 复旦大学出版社.
- Bernhard Karlgren. (1963).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Göteborg: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김대성

240-010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산119번지

동해대학교 외국어학부 일본어학과

전화: 033-520-9386

이메일: hanbyeol@donghae.ac.kr

Received: 31 March 2003

Accepted: 29 May 2003

Revised: 12 Jun 2003